

세파에 쫓기는 삶... '자신을 되돌아 본다'

수행프로그램 엿보기

재가불자의 참선수행

- 1. 한국의 재가선종
- 2. 간화선 수행의 실제



수행가공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수선회의 정진 장면. 참선의 자세 등 5회이상의 참선수행교육을 받고 3인 7거를 성만한 불자들이 정기 회원을 얻는다.

65년 보림회·선도회 재가禪風 확립 조계사·길상사 등 도심에 선방운영

(회장 이수열)는 초창기 한국 불교계에 거사풍(居士風)이라는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러라' 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돌고, 낮에는 '모습을 잘 굴러라' 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러라' 라는 뜻으로 지엄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있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나투자' 라는 여김으로 삼매에 잠길 줄을 알면, 이에 따라 깨진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러라' 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백봉 거사는 일체 만법인 상대성은 본래로 홀연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그 사실을 학인들에게 이론적으로 깨우치고, 반드시 무상법신(無相法身)이 유상법신(有相法身)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니도록 했다.

백봉 거사의 제자들로 구성된 보림회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주말 철야정진을 해온 지는 어언 29년. 여름, 겨울 휴가에 맞춰 실시하는 일주일간의 용맹정진 역시 무려 55회 째를 넘겼다. 120여 보림회 회원들은 산청(본원) 지리산 보림선원과 부산 화엄사, 정릉 보림사에

서 주말을 이용해 각각 정진하고 있다. 1908년 부산 영도에서 태어난 백봉 거사는 외로이 독립운동을 하던 암울한 시대를 뒤로 한 56세에 불법을 만나 '무자(無字)' 화두로 정진하던 중 6개월만에(1963년 1월) 새벽 종치는 소리를 듣고 환경대요(豁然大悟)한 우리시대의 도인이었다.

간화선을 수행의 핵으로 70여회원 화두타파 전념

◆선도회의 입실지도
선도회(지도법사 박영재)는 65년 종달 이회익 노사에 의해 창립된 재가수행자 모임. 남송의 대혜종교 선사(당시 사대부들을 지도하며 확립한 간화선을 수행의 핵으로 한다. 무(無)자 화두와 스승과 제자의 선문답을 뜻하는 '입실(入室) 지도'를 중요시하는 선도회는 "스승만 제대로 만난다면 간화선만큼 빨리, 그리고 간결하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수행법도 없다"고 강조한다.

선도회의 가풍(家風)은 '하루 향 한 대 타는 시간동안 앉지 않으면 한끼를 굶는다'는 것. 서울 목동, 정릉, 서강대, 인천, 대전, 광주 등 6곳에서 70여명의 회원들이 화두 타파에 전념하고 있다. 1990년 초대 지도법사인 종달 이회익 노사의 뒤를 이어받아 선도회를 이끌고 있는 서강대 물리학과 박영재 교수는 "간화선은 모든 괴로움의 원천인 이분법적 분별심을 끊고 평상심을 갖게 해 직장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이라고 말했다.

종달 거사는 1924년 일본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후 1925년 일본 임제종 묘심사와 경성불원 전문도량과 경도 남선승당에서 수행했다. 1960년 월간 <법사> 편집인을 지낸 종달 거사는 '무(無)자' 화두를 타파한 65명의 거사와 대자(大師)를 배출했으며, 14권의 선관련 저서를 남겼다. 80세 되던 해 쓴 자서전 <인생의 계단>에서 "가까스로 조주무자를 얻어 평생을 쓰고도 다 못쓰고 가노라"는 경계를 나타냈다.

용맹정진 못지않은 수련 해마다 회원 100여명 출가

◆수선회의 용맹정진
수선회는 1975년 선수행하던 청년 불자들이 위해 창립됐다. 수선회는 '以法合友活禪現用'으로 하나되고 선을 살려 현실에 쓴다' 이런 강령에 따라 '부처님법을 배우고 선을 실천해 깨달음의 경지를 대천세계에 밝히겠다'고 창립취지문에서 선언하고 있다.

수선회 회원은 2천여명에 이르지만 650여 도반은 고유번호를 갖고서 서로가 경책하며 수행에 임하고 있다. 모두가 학생, 직장인, 노보살에 이르기까지 재가 불자들이다.

지난 88년에는 조계사 옆에 자체 선방을 개설했으며, 이후 서울 강남과 경기도 양평, 캐나다 토론토에 지회를 두고 있다. 도심속에 자리한 이 선방들은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 까지 빈자리가 없다. 여름이면 4차례의 수련회를 통해 화두를 추수한다. 이 수련회는 정진의 강도가 높아 스님들의 선방 용맹정진 못지 않다. 모두가 묵언으로 진행되는 여름수련회를 마치고 나면 해마다 10여명씩의 회원들이 출가를 한다. 이렇게 출가한 200여 수선회출신 수좌들은 전국 선방에서 정진 중이다.

수선회는 87년부터 근일, 송산, 장일, 해암, 진제, 원당, 회광, 혜정, 서암, 화란, 성수스님 등 고승들이 결제 이외에는 매주 목요일 참선 법문을 한 고승초청법회를 열어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수선회 회장 현담스님은 "좌선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가고 오고 말하고 일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익여져서, 화두 한생각이 24시간, 365일, 흐르는 물과 같이 지속되는 여기에 실다운 정진의 힘이 생긴다"고 말했다.

4월생명의 달

- 환경과 불교
- 불가전통의 친환경적 요소
- 생활 속 실천과제

생활 속 실천과제



지난 10월 열린 부산정토회 제4기 생태학교 세미나. 생태적 삶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소비·생활습관 바꿔야

"저희집에는 2개의 빨래대야 있습니다. 하나는 걸레를 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와이셔츠 등을 빼는 대야죠. 우선 와이셔츠 등을 빨고나면 그 물은 버리지 않고 걸레대야에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와이셔츠를 행구고 난 마지막 행굼물도 깨끗한 대야에 그대로 두고, 걸레를 행굼질할 때 그 물을 사용합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머노리가 시어머니의 생활을 보고 배우며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는데, 68세된 시어머니의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고 꼼꼼하다. 그들의 실천을 살펴본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챙기며 살 수가 있을까하고 놀라워한다. 그만큼 환경과 환경운동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는 든구름 잡듯 관념적이다.

실제로 부산정토회의 환경담당 실무자인 최성희보살은 "환경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들은 많지만 환경을 위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이는 많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환경의 실태를 알리는 강좌나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라서 실천을 못했다면 발 빠른 실천으로 상생의 길을 열아가는 이들에게서 몇가지 배워보자. 물 오염과 낭비를 막기 위한 실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설치지시 천연세제 사용하기가 있다. 기름때를 씻어 낼 때 흔히 알려진 밀가루, 쌀뜨물 외에도 과일껍질, 아재끼질, 시금치 데친 물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와이셔츠를 행구고 난 마지막 행굼물도 깨끗한 대야에 그대로 두고, 걸레를 행굼질할 때 그 물을 사용합니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머노리가 시어머니의 생활을 보고 배우며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는데, 68세된 시어머니의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고 꼼꼼하다. 그들의 실천을 살펴본 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사소한 일들을 챙기며 살 수가 있을까하고 놀라워한다. 그만큼 환경과 환경운동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사고는 든구름 잡듯 관념적이다.

실제로 부산정토회의 환경담당 실무자인 최성희보살은 "환경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이들은 많지만 환경을 위해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이는 많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환경의 실태를 알리는 강좌나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라서 실천을 못했다면 발 빠른 실천으로 상생의 길을 열아가는 이들에게서 몇가지 배워보자. 물 오염과 낭비를 막기 위한 실천 중 대표적인 것으로 설치지시 천연세제 사용하기가 있다. 기름때를 씻어 낼 때 흔히 알려진 밀가루, 쌀뜨물 외에도 과일껍질, 아재끼질, 시금치 데친 물 등을 사용한다. 그리고 와이셔츠를 행구고 난 마지막 행굼물도 깨끗한 대야에 그대로 두고, 걸레를 행굼질할 때 그 물을 사용합니다.

제행무상(修行無常)을 증명이라도 하듯,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간다. 잠자는 시간을 뺀 하루 종일 숨가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세상일 수록 잠시나마 자신을 되돌아보는 안식처가 필요하다. 몇 년전부터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도심의 선방(禪房)들이 그런 곳이다.

보리 달마로부터 비롯된 선종의 성립 이래로 최상승의 수행방편으로 오랫동안 각광을 받아온 간화선(看話禪). 화두를 통해 수행자가 큰 의심을 일으켜 찰나에 화두를 타파(打破), 깨달음을 증득(證得)하게 하는 심인법(心印法)이다. 간화선은 달마대사를 초조로 육조 혜능스님에 이르러 꽃을 피우고 마조, 임제, 덕산스님 당시에 중국에서 크게 중풍을 떨쳤다. 이때 정리된 1700여개의 화두가 한국에 도입되면서 한국 선불교 수행의 중심을 이룬다.

현재 도심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선방을 운영하는 곳은 서울 길상사와 조계사, 봉은사, 금강선원을 비롯해 인천 용화사, 부산 해운정사, 동도사 부산포교당 등 사찰들과 수선회, 보림회, 선도회, 한국불교연구원 구도회 등 수행 모임들로 구분된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재가 선종이 확립된 것은 1965년에 백봉 김기추 거사가 보림회를, 종달 이회익 거사가 선도회를 창립하면서부터다. 이어 75년 수선회가 창립, 87년을 정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당시 조계사 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선종 초청 선방회를 열어 다시 한번 도심 속에 선종을 정착시켰다.

이같은 한국 재가선종의 특징은 재가자들이 직장이나 가사의 업무에서 짊어진 참선에 몰두하는 동시에, 행주와 어묵등의 일상 생활 속에서 화두를 놓치지 않고 정진하는 생활선(生活禪)을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간한 <재가자를 위한 수선(修禪) 교본>은 이런 한국 재가선종의 특징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행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지향하고, 참선은 내로써 참선은 내로써 속하지 않는 것(禪不屬他)로 보고 있다. '좌선(坐禪)은 연습이요, 생활이 실수(實修)'라고 하는 이런 생활선은 <재가자를 위한 수선교본>에서 '무심형 간화(無心形 看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요약된다.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화두에 몰두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삼매에 이르도록 하는 집중형 간화(集中形 看話)와는 달리 무심형 간화는 애당초 무심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처음부터 화두를 행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바로 지금 여기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할 뿐이다. 그러다가 문득 역순경계(逆順境界)가 나타나 한 생각 망념이 일어나는 순간 무분별심으로서의 화두를 챙김으로써 본 마음, 참나 즉 평상심(平常心)으로 돌아오게끔 따돌린 것이다."

대표적인 수선단체인 보림회, 선도회, 수선회의 가풍을 통해 재가 참선수행의 요체를 알아본다.

주말 철야정진 29년째
120여회원 거사풍 계승

◆보림회의 거사풍
1965년 백봉 김기추 거사가 창립한 보림회

붓다

모십니다

불기 2546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부대중의 관심 속에 광주·전남불교 합창예술제가 이 지역 5개 사찰 합창단(백양사, 향림사, 원효사, 한마음선원, 사암연합)이 불교 음악의 대서사곡 '부처님이야기'를 무대에 올립니다. 부디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2년 4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벽상 합장

불교음악의 향연

2002 제 6회 광주·전남 불교합창예술제

공연내용

제1부

- 원효사합창단
- 향림사합창단
- 백양사삼사합창단
- 한마음선원혼성합창단
-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 노을
- 무상계
- 남촌
- 경사로드
- 누가하는가요
- 한마음있음이여
- 빈손
- 에델바이스
- 홀로아리랑
- 얼마나 다했어야 거울마음 담을까

제2부 - 부처님이야기

광주·전남불교 보리살타 연합 합창단

- 출연자 - 원효사합창단, 향림사합창단, 백양사삼사합창단, 한마음선원혼성합창단, 광주불교사암연합합창단
- 독창 - 강명자, 오순아, 김성남, 이영숙, 성경남, 문익순, 우정례
- 소프라노 - 정지선, 장영의, 박순례 외 75명
- 알토 - 자비영 이숙의 외 50명

특별출연

이들 명, 향림사예술단

- 사물놀이
- 정광고어슬부림
- 댄스
- 순천사암연합가람빈가합창단
- 꽃 공양, 경사로드
- 한마음선원어린이합창단 나의작은별이야기
- 선법가를 찍목시켜 만든 어린이 음악극

주최 :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주관 : 광주·전남 불교 보리살타연합합창단
후원 : 백양사, 향림사, 원효사, 한마음선원
협찬 : BBS광주불교방송, 연대불교신문 광주·전남지사

공연장 소시는 길

공연일시 : 2002년 4월 26일 (금) 오후 7시
공연장소 : 5 18 기념문화센터(상무지구 KBS방송국 옆)
문의전화 : 062- 375-9986, 376-3223

입장은 무료입니다 **많은 홍보 바랍니다**